

구역연합 예배 순서지

2023.09.06.(수)

- 일 시 : 정해진 날 -장 소 : 정해진 장소 -인 도 : 구역장 또는 강사
● 목상기도/각 자 ● 기 원/인도자 ● 신앙고백/사도신경
● 경배찬송/새 장(통 장) “ ” ● 기 도/가족 중에서
● 주일말씀과 삶의 나눔/주일예배 말씀의 은혜와 삶을 서로 나눕니다.
● 성경봉독/예레미야(렘)11:1-13(구p.1068)/구역원 중에서
● 말 씀/“우상을 제거하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우선하고, 가장 잘 따라가야 할 것은 무엇일까?

1.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명령은 무엇이며, 저주를 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 입니까?(1-3절)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전하라는 명령을 하셨다(1-2절). 또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다(3절).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잘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 그것이 비록 불편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은 무엇이며 하나님은 무엇을 증거로 삼았고, 예레미야는 여기에 어떻게 반응합니까?(4-5절)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이 유다 조상들을 쇠풀무 같았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 즉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너희가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고 명령하고(4절상) ‘그 명령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약속함으로써 언약을 맺으셨다(4절하). 그리고 하나님은 ‘유다 조상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한 언약을 이룰 것’이라고 맹세하셨는데 오늘이 바로 그것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5절상) 예레미야는 ‘아멘’이라고 응답하였다(5절하). 출애굽 당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출19:5-9;신7:9)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까지 소급되며(창17:7),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 복음을 수용한 모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언약이 유효하다.

3.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맡기셨으며,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6-8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지킬 것’을 전하라고 하셨다(6절).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간절히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을 것’을 경계하여 말하기를 ‘하나님 목소리를 순종하라’고 했다(7절). 그러나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자기 악한 마음대로 각각 완악하게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언약의 규정대로 이루게 하신다’고 하셨다(8절).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유다 백성들은 모두 악한 마음으로 강박하게 말씀듣기를 거절하고, 말씀에 불복함으로 언약의 규정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길로 갔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4.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이 한 일은 무엇이며, 그 결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무엇입니까?(9-13절) 저들의 우상숭배는 어느 정도였습니까?(14절)

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서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 하셨다(9절). 그것은 저들이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김으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트렸다고 말씀하셨다(10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겠고 그 재앙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11절). 그러므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분향하는 우상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어도 그 신들이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저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12절). 그것은 ‘저들이 섬기는 신들이 성읍의 수와 같았고, 예루살렘 거리의 수만큼 수치스러운 물건(우상)의 제단인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기 때문’이라고 하셨다(13절). 요시야왕의 개혁으로 얼마동안 우상을 섬기지 않다가 여호야김 시대에 다시 우상을 섬긴 것을 말하는데(왕하23:3,35-37) 진정한 개혁은 형식적이고 외적인 것으로 되는 아니라 마음의 개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골2:13). 우상은 그 숫자와 그 제단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고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속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복종하여 구원의 역사를 경험해야 한다(빌2:12). 하나님 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 나눔과 기도/다같이

1. 들을 수 있는 귀와 행할 수 있는 마음의 믿음을 주셔서 저주의 심판이 아닌 복된 길 가게 하소서.
2. 특별새벽기도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약속의 말씀과 은혜를 따라 승리하게 하소서.
3. 선선해지는 가을의 절기를 맞아 많은 결실을 거두는 수확의 계절이 되게 하소서.
4. 연로하신 교우들과 모든 성도들을 환절기 가운데서도 강건하게 지키소서.
5. 연약하고 병약한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경제적인 문제도 도와주소서.
6. 송림1,2동지역 재개발사업이 잘 진행되고, 부지위치와 건축준비도 잘 되게 하소서.
7. 우리 교회가 동구와 인천과 온 세계를 향한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8.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속히 끝나고, 국내의 정쟁도 끝나고, 남북의 평화통일도 속히 오게 하소서.

● 마무리 기도/말은 자 중에서

- 파송찬양/새354장(통394장) “주를 앙모하는 자” ● 주기도문/다같이